“잊혀진 가야·마한사 교과서에 정당하게 수록해야”

광주일보·호남문화재연구원 문화강좌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 강의
가야사 등 역사 연구 공백 많아
소외된 지역 고대사 재조명을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문화강좌에서 가야문화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고대사에서 잊혀진 가야, 마한사를 그 유구한 역사에 걸맞도록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정당하게 수록해야 합니다.”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는 지난 29일 광주일보사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신흥남)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가야역사문화권 강좌(가야사의 의미와 전개)에서 “소외된 지역 고대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야사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이유는 기원전·후 600년 동안 독자적 정치체로 존속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일구고 번창했던 고대 영남지역의 역사라는 점 때문”이라면서 “고구려·백제·신라 중심의 삼국사기 때문에 가야사가 배제돼 영남의 역사는 공백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가야는 한 쪽 반, 고교 교과서에서는 고작 다섯 줄 언급에 그치고 있다”며 “탐라나 마한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를 공부하지 않은 탓에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망령이 가야의 공백을 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임나일본부는 일본 고대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수록돼 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6세기 왜(倭)가 한반도 남부(임나·가야)를 근대의 식민치처럼 통치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일본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경향을 식민사학이라고 폄훼하는 일각의 시선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서기에는 왜(倭)가 마치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것 처럼 기록돼 있으나 우리 연구가 축적되면서 사실은 백제가 가야지역에 침략해 들어오는 과정을 일본서기에서 본인들이 주체인 것처럼 기술하고 왜곡한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서기를 통해 우리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식민사학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연구의 공백과 교과서에 제대로 수록되지 못한 탓에 가야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역 관광시대에 고대사를 중심으로 한 가야관광이 콘텐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 마한사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가야금에 얽힌 새로운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5세기 중·후엽 대가야 가실왕이 우륵에게 가야금 12곡을 작곡하도록 했다. 이 곡명은 삼국사기에 수록돼 가곡, 연주곡, 무곡 등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가야금 12곡명은 서부 경남에 존재했던 가야 여러 나라의 이름이며,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음악이라는 것이다. 즉, 통합한 여러 나라의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음악이었다.

이 강좌는 지난해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권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일보사와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지역민의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 타 문화권과 비교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6일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마한역사문화권)의 강연이 진행된다. 지난 강좌는 유튜브(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호남문화재연구원 기획사업실(전형민 061-383-3640).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취업지원위원회, 광주전남법무보호복지공단에 위문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으로부터 돼지고기와 청소기, 전자렌지 등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위문품을 기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달된 위문품은 생계가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해 쓰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전남적십자, 저소득 가정 위해 고추장 담그기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광주시 매곡동에 자리한 광주전남지사 인도주의홀에서 적십자 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최상철)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성가득 고추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인사

◆조선대학교

◇보직 승진

▲대외협력부처장 박준영 ▲교육혁신원 E-Learning지원팀장 정현희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장·보건진료소 보건팀장 권광호 ▲대학원 교학팀장·대학원혁신지원단 행정지원팀장 서은숙 ▲취업학생처 취업전략팀장 정재호

◇4급 승진

▲대외협력처 홍보팀장 이강희 ▲연구처 산학협력팀장 이경숙 ▲LINC+사업단 행정지원팀장 이진

◇5급 승진

▲단과대학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고미숙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 구보배 ▲단과대학 사범대학 최보해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55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00 2022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55 제8회 지방선거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크레이지 러브(재)		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3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국회 인사청문회		00 국회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00 뉴스브리핑
3		10 또봇V 시즌2(재) 30 TV 유치원		
4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연중 라이브(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나도 남도 행(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꽈배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붉은 단심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50 100번째 어린이날 기획 개는 훌륭하다	30 로컬식탁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매거진	50 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재)
12	1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스튜디오 K	30 포비든앨리 시즌2(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뽀롱뽀롱 뽀로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07:30 엄마 까투리
0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출동! 슈퍼윙스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09:05 그린조끼 구조대
09:20 꼬마버스 타요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50 EBS 다큐프라임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5:40 지식채널e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7:45 출동! 슈퍼윙스(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9:00 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음 4월 2일 乙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48년생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릴 수도 있는 성국이다. 60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72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 하라. 84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96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06, 91

丑 37년생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49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되겠다. 6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73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85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7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 44, 60

寅 38년생 당면 과제에 매진함이 기쁨을 줄 것이다. 50년생 길한 징조가 아주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62년생 지름길을 택해서 곧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74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86년생 마음가짐 못지않게 실행이 중하다. 98년생 외관이 좋다면 실속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9, 72

卯 39년생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51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63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75년생 기존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87년생 불편하다면 시급히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99년생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0, 73

辰 40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다. 52년생 완곡하게 유도해 주는 것이 무탈하다. 64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함구하고 있어야 한다. 76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도다. 88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00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3, 82

巳 41년생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53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65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막상 임하면 마른 나무 꺾듯 할 것이다. 89년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니라. 01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0, 59

午 42년생 기회는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니 눈여겨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기쁜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니라. 66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78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90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02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5, 90

未 43년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55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67년생 느낌으로만 판단하여 건너짚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79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91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도다. 03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1, 52

申 44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56년생 상대의 절실한 요청이 있을 것이니라. 68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효적이다. 80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하다. 92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04년생 횃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79

酉 33년생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관계임을 알자. 45년생 최선을 다 하면서 절실히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57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69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자. 81년생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93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71

戌 34년생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인다. 46년생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58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0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린다면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82년생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94년생 임의적이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4, 76

亥 35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47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니 상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59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71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83년생 요령이 없으면 여러 명을 고생시킨다. 95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66